

글로벌 커넥트

(Global Connect Initiative, GCI)

■ 전 선 민*

1. 개요

미 국무부는 2015년 9월 27일 UN 총회에서 “글로벌 커넥트”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까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15억 명의 사람들을 추가로 인터넷에 연결하겠다는 내용으로 동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미국의 주요 개발기관들이 전세계적 업무수행에 있어서 인터넷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의 이용은 주로 선진국에서 높게 나타나며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디지털 격차는 높게 나타난다. ITU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가정의 81.3%가 인터넷에 연결가능한 반면, 개도국의 34.1%와 최빈국의 6.7%만의 가정이 인터넷에 연결가능하다고 한다.¹⁾ 미 국무부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이행을 지지하면서 2020년까지 특히 개도국의 15억 명을 추가로 연결하겠다는 동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래로 2016년 4월 13일~14일, 양일간 미 국무부장관과 월드뱅크 총재가 참여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더 많은 국가와 이해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원, (043)531-4182, jsmina@kisdi.re.kr

1) ITU(2015)

계자들의 글로벌 커넥트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동 이니셔티브를 G7 ICT 장관회의(2016. 4. 29~30, 일본 다카마쓰)와 2016년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포럼(2016. 5. 2~6,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소개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커넥트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²⁾

2. 글로벌 커넥트

오늘날 세상에서 인터넷 접속은 필수이며 경제성장과 개발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현재 30억 명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있으나 여전히 전세계 인구의 60%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 미 국무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추가로 15억 명을 2020년까지 인터넷에 연결하겠다는 글로벌 커넥트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정부, 민간, 산업계, 기술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도모하고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이행노력의 지표가 될 글로벌 커넥트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였다.³⁾

(1) 글로벌 커넥트 연결성 원칙

글로벌 커넥트의 목표는 달성하기 용이한 목표는 아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달성이 가능한 목표이며 차후 5년 이내에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접속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글로벌 커넥트 이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⁴⁾

- ✓ 인터넷 연결성이 모든 국가 개발 전략의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함
- ✓ 정부, 산업계, 시민 사회, 기술계, 국제 금융 기관 및 국제 개발 기구를 포함한

2) ITU(2016)

3) <https://share.america.gov/globalconnect/>

4) Global Connect Initiative Connectivity Principles(<https://share.america.gov/globalconnect/>)

-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전세계 연결 달성을 위한 노력 가속화
- ✓ 소외지역의 연결성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산업계 주도의 해결책 제시 독려
 - ✓ 인터넷 사용의 확산과 사람들에게 인터넷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필수적인 디지털 활용능력 강화와 지역 콘텐츠·어플리케이션·서비스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것
 - ✓ 공공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 등과 같은 장소의 공공 인터넷 액세스 증가 장려
 - ✓ 연결성 확산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 국경 간 정보 흐름과 개방된 경쟁 시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전략의 채택을 통한 발전 가능한 환경 조성 지원
 -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성을 전 세계적으로 더욱 이용이 용이하고, 접근 가능하며, 수용 가능하도록 조성

〈표 1〉 글로벌 커넥트 확산을 위한 2016년 지지요청 계획

G-7 ICT 장관회의(일본 다카마쓰, 04. 29~30)
2016 정보사회정상회의 포럼(스위스 제네바, 05. 02~06)
ITW(International Telecoms Week) 회의(미국 시카고, 05. 8~10)
2016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회(스위스 제네바, 05. 25~06. 02)
디지털 경제에 대한 OECD 장관회의(멕시코 칸쿤, 06. 21~23)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서밋(미국 캘리포니아, 06. 22~24)
2016 G-20 항저우 정상회담(중국, 09. 04~05)
제71회 UN 총회 세션(미국 뉴욕, 09. 13~27)
브로드밴드위원회 회의(UN 총회와 연계, 09. 18)
2016 세계 경제 포럼 행사(아프리카-르완다 키갈리, 05. 11~13 ; 아세안-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06. 01~02 ; 라틴 아메리카-콜롬비아 메델린, 06. 16~17)
2016 가을 산업계 주도 글로벌 커넥트 이해관계자 회의: 전진 해법(미국 워싱턴, 10. 07~09)

출처: <https://share.america.gov/globalconnect/>에서 재정리

(2) 글로벌 커넥트 지침

인터넷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국가들이 인터넷 연결성에 뒤처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자원 부족, ICT 기술 인력 부재, 정치적 불안정성 등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 글로벌 커넥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에서도 핵심 성장 동인으로 주지한 ICT와 인터넷 연결성 증대가 경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글로벌 커넥트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 ✓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2020년까지 공공과 민간 자금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과 기술적 지원에 혁신적인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찾아보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
- ✓ 정부와 다자개발은행은 디지털 연결성에 대한 기술적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것
- ✓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Dig Once” 정책과 같이 인터넷 연결성을 물리적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 통합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
- ✓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글로벌 커넥트의 연결성 원칙에 공헌할 것⁵⁾

〈표 2〉 정책사례: Dig Once

목적	모든 주요 인프라 건설 계획이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공공시설 인프라, 에너지 배분 채널을 구축하거나 보수할 때 지하 광케이블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 동 정책은 폐기물 방지를 위해 빈 도관보다 광케이블을 배치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 빈 도관은 종종 먼지로 채워지거나 공공 및 도로 건설 프로젝트 중 파괴됨
----	--

5) Global Connect Initiative Roda Map(<https://share.america.gov/globalconnect/>)

고려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 -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가장 필요한 지역을 찾아 광케이블 설치, 빈 도관 설치 방지를 통한 폐기물 방지 2. 법적측면 - 누가 브로드밴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누가 광케이블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역 법률 검토 3. 협력 - 공익기업, 도로건설자, 인터넷사업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의 협력을 통해 비용과 불필요한 글착의 최소화 4. 문서 - 이해관계자들과 지역 정부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광케이블 설치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5. 지식 공유 -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건축 계획과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광케이블 설치 방안에 대한 모범사례 공유
이점	비용절감, 브로드밴드 망의 연결성 증대, 공공안전 시스템 증대, 브로드밴드 확산을 통한 경제적 혜택 확산 등

출처: <https://share.america.gov/globalconnect> 에서 재정리

(3) 국제적 노력

글로벌 커넥트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독려를 위해 2016년 4월 14일 개최된 고위급회의에는 미국무부장관과 월드뱅크 총재를 포함한 27개국 이상의 정부대표와 시민사회, 통신업계, 국제기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동 고위급회의 참석자들은 65개의 신규 또는 진행 중인 연결성 증대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총 200억불 이상이 투자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다자은행, 시민사회,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원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이니셔티브에서 이용가능한 적절한 가격의 브로드밴드 접속 제공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1) 개발에서 연결성 강화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 2) 보편적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 3) 고립되고 연결되지 못한 지역의 연결 지원, 4) 공공 인터넷 액세스 강화, 5) 연결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채택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캐나다, 코스타리카, 핀란드, 일본, 칠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CITEL, IEEE, 구글, 인텔 등이 참여하였다.

3. 결 어

인터넷 경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GDP의 6%에 이르고 있으며 개도국에서는 인터넷 경제 규모가 15~20%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개도국에서 인터넷 연결성이 10%증가할 때 GDP는 1.4%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이러한 현황에서 인터넷에서 소외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그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개발 지원 노력은 개도국들이 성장이 가능한 발전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커넥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혁신적인 산업계 주도 ICT 해결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ICT 경제에 민간 부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경제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커넥트 이니셔티브를 통한 노력은 ITU가 2014년 전권회의에서 채택한 신규결의 200 커넥트 2020과도 그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커넥트 2020 의제 제안국 중 하나인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https://share.america.gov/globalconnect/>

ITU (2015). ICT Facts & Figures 2015.

____ (2016). Global Connect Initiative, David Renz, US Department of State Global.

6) ITU(2016)